

음식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질병

(지상강좌 제 1 회)



세계 각지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전염병이 유행되고 있으며 특히 열대지방에는 기후, 환경적인 여건등으로 무서운 풍토병들이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건강소식 2월호부터 해외여행자 및 독자들을 위하여 매월 게재할 계획입니다.

콜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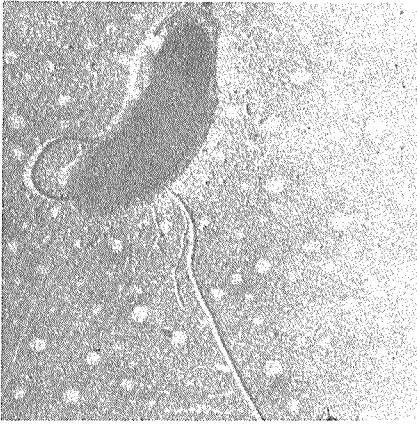
-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 콜레라는 급성장관 감염증으로 콜레라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생수를 마시므로써 감염되는 질

병이다.

- 1~4일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서 쌀뜨물 모양의 심한 설사, 구토가 있고 이때 탈수증상이 오며 쇼크상태로 사망하는 일이 적지않다. 그러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유할 수 있다.

이질과 식중독

- 열대지역은 어디서나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는 이질아메바증을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고치기 힘들뿐 아니라 생명의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
- 설사가 2일 이상 계속 될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는 편이 좋다. 이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시는 일을 피할 것과 육류나 야채를 생식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열대지역 특히 위생상태가 좋지않는 지방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다.
- 음식물이나 음료수에 혼입된 이질균이나 살모넬라균 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염비브라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심한 설사, 복통이 오고 피가 섞인 변이나 구토등의 증상이 있으나 개인에 따라 증상이 같지는 않다.
- 따라서 설사나 구토가 있고 먹은 음식물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계속>



• 전자현미경으로 본 콜레라

-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야하고 그렇지 못하여 치료가 늦어질 때는 테트라사이클린 항생물질(테라마이신 250mg 매 6 시간 마다 복용)이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낸다.
- 콜레라의 예방접종은 접종후 6개월간 유효하다고 일컬어지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완전히 예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